

월요논단



김 봉 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 겸임교수

호주 정부가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호주가 막은 건 ‘화면’이 아니라 ‘계정’인데, 16세 미만이 특정 SNS에서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플랫폼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단속하는 대신 플랫폼에게 책임을 지운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을 떠올려보면, 호주의 결정을 극단적인 정책으로 넘기기 어렵다. 한국의 청소년 또한 SNS 위에서 긴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

SNS, 안전한 진입로가 필요하다

나라 10대 이하 이용자는 유튜브를 하루 평균 98분, 인스타그램을 49분 사용한다. 둘을 합치면 하루 2시간30분에 가까운 시간이다. 학원 이동과 쉬는 시간, 잠들기 전의 짧은 순간들이 쌓이다 보니 SNS가 하루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문제는 단순한 사용 시간이 아니라, 계정이 열여졌하는 기능들이다. 로그인과 동시에 자극적인 알고리즘 추천이 불고, ‘좋아요’와 ‘팔로우’ 수는 비교의 기준이 되며, 댓글 한 줄은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유발한다.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감정·관계에 있어서 덜 단단한 시기에 너무 큰 무대가 먼저 깔린 셈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23년 고등학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SNS를 자주 사용하는 학생들은 학교·온라인 괴롭힘 경험과 지속적 슬픔·절망감, 일부 자살 위

험 지표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더 컸다. 인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험 신호가 반복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은 무겁다. 영국에서는 10대 소녀 사망을 다룬 조사에서 우울과 함께 온라인 콘텐츠의 부정적 영향이 결론에 명시되며, 플랫폼과 사회가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이런 사례는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두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다.

‘계정 지연’은 통제가 아니라 안전장치다. 운전면허가 이동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최소 기준이듯, SNS도 최소 연령선을 세워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진입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책임을 아이에게 돌리는 대신, 플랫폼에게 책임을 지워 기본값을 더 조심스럽게 설계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이라면 사회의 시선도 달라질 수 있다.

사실 호주의 이번 정책은 찬반이 뜨겁다. 청소년이 SNS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관계·표현의 기회를 사실상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다만 호주가 먼저 길을 열어 준 만큼, 한국은 시행 과정과 효과를 면밀히 지켜보며 단점을 보완한 형태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방향은 단순하다. 16세 이전에는 계정 생성을 늦추고, 계정을 갖게 되는 시점부터는 청소년 계정을 ‘보수적 기본값’으로 시작하게 하자. 공개 범위, DM, 추천 피드의 강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커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학교는 단속 대신 온라인 관계의 규칙을 가르치고, 가정은 잠들기 전 한 시간만이라도 화면 밖 루틴을 함께 만들면 된다. 결국 우리가 만드는 건 금지가 아니라, 위험을 낮춘 진입로다.

사설

4·3 왜곡 현수막 철거… 처벌 규정 시급

4·3 왜곡 논란 현수막이 금지광물로 결정돼 철거된다. 해당 광고물은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 옆에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지자 이를 가로막기 위해 게시돼 논란을 일으킨 4·3 왜곡 현수막이다.

제주도는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 주변에 설치된 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철거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혐오·비방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전향적으로 단속을 도입한 이후 철거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이 4·3 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옥외광고물법상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제

주도는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기한 내 철거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철거 후 또다시 게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4·3 왜곡 현수막 설치를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4·3 왜곡 현수막 게시는 잊혀질 만하면 반복돼 도민 사회의 공분을 샀다. 금지광고물로 판단해 철거를 결정할 수 있는 옥외광고심의위가 그동안 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문제는 4·3 왜곡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4·3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가제로 바꾸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여기서 멈춰선 안돼

제주특별자치도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내 택배사와 의료기관, 관계 기관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열어 검진비 지원과 맞춤형 검진 항목을 논의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과로와 사고 위험에 늘 노출된 택배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정책의 성패는 실행에 달려 있다. 그동안 노동자 건강권을 명분으로 한 각종 정책이 나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건강검진 지원 역시 실질적인 수검률 제고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취지만 좋은 정책’으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택배노동자의 노동 구조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 불규

칙한 근무시간, 물량 중심의 평가 구조 속에서 건강검진은 늘 우선 순위에서 밀려왔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검진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 그친다면 현장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검진 당일 휴무 보장과 참여를 유도할 실효성 있는 장치, 반복 검진이 가능한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도내 택배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단순히 소속 노동자의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건강 관리가 산업안전과 서비스 품질로 이어진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기관 간 업무 협약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정책이 단순한 건강검진 지원 정책에 머무르지, 택배노동자의 일상을 바꾸는 제도로 자리 잡을지는 이제 실행에 달려 있다.

열린마당

도민의 눈으로 행정을 보다

허 속 자
도민감사관

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도민 삶의 현장 점검이다. 연 2회 실시되는 현장점검을 통해 보행로 안전 문제, 공공시설 관리 상태, 교통 및 환경 문제 등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 우리 삶 속 다양한 현장의 불편 사항을 보완·정비·개선하고 있다.

셋째는 행정기관 정기감사 참여다. 도민감사관은 감사 과정에서 도민의 시각으로 행정을 바라보고 있다. 규정상 문제는 없으나 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 관행을 발견할 경우, 담당 부서와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해 실질적인 해소책을 모색하고 있다.

도민감사관은 행정을 감시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도민의 삶을 행정에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다. 청명한 제주,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연결고리로서 도민감사관의 역할은 오늘도 묵묵히 이어지고 있다.

도민감사관의 첫 번째 역할은 공익제보와 제도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일이다.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 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할 수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선거 몸풀기… 잇판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후보들 지지층 결집 주력

공사장 위험요인 사전 차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차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리를 노리는 예비후보들이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를 열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오는 25일 제주시 한라아트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설날(2월 17일) 전후로 제주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

이런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는 지사는 다음 달 7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현직 도지사 선거를 앞둔 시점에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도정 성과와 정책 비전을 직접 설명하고 지지층과의 접점을 넓히려는 행보로 해석.

○…제주시는 건축공사장의 규모·시기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초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

계획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중·대형 공사장은 해빙기, 우기, 겨울철 등 취약시기별로 연 6회 정기점검을 벌이고, 소규모 공사장·해체공사장은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

시 관계자는 “안전점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조기술사, 산업안전기사 등 민간전문가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며 “점검반은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시공·품질관리, 위험물·건설장비 관리 등을 점검하게 된다”고 강조.

감사의 말씀

이번 원주면씨 효진(향년 45세, 부산 경제진흥원 동반성장팀장)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 1월 12일

남 편 임 성 준

채권신고 공고(제2차)

재단법인 덕산문화재단은 2025년 12월 3일 이사회 결의 및 주주관청의 해산 허가에 의하여 해산하였기에 민법 제8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재단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 및 내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채권신고기간: 2026년 1월 12일부터 2026년 3월 17일까지
2. 신고장소: 재단법인 덕산문화재단 사무실 [제주시 애초로 1252, 301호]
3. 신고방법: 우편(등기권장) 또는 방문접수
4. 유의사항: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채권은 청산 절차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월 12일

재단법인 덕산문화재단
청산인 김동연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국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평문공 명서(향년 8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 1월 12일

배우자 양정자
아들 문원일 며느리 부향순
원희 이준서 차명숙
원택 이준서 강영숙
원철 원철 임선영
원욱 원욱 김영미
딸 문원비 사위 양영수

● 깨끗한 환경 건강한 생활 ●

제주, 입주청소

하수구청, 번기교체 제초작업/벌초대행

010-4025-6424

- 입주, 이사, 거주, 부분청소 -
아파트, 빌라, 연립, 펜션, 개인주택, 식당, 상가, 학원, 사무실, 공연장 등등

줄눈시공/방충망교체/생활폐기물처리
싱크대수전교체/곰팡이제거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입주 첫 날의 그 깨끗함, 그대로를 재현합니다.

등록번호: 616-16-81361
세금계산서 발행, 카드결제 가능

제주크린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을2리 응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 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